

사조그룹, 함평에 대규모 육가공 공장

전남도와 협약...2013년까지 760억원 투자

14만m² 부지 도계 설비·물류창고 등 건립

국내 최대 치치 원양아업 및 식품 가공 전문회사인 사조그룹이 전남 함평에서 대규모 도계 및 육가공 사업을 추진한다.

전남도는 16일 오후 도청 서재필실에서 박준영 전남지사와 안병호 함평군수, 주진우 사조그룹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760억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사조그룹은 축산업 및 육가공 식품 사업을 총괄하는 법인인 (주)사조아그로를 설립, 함평군 학교연 일원 14만2000m²(4만평)부지에 2013년까지 760억원을 들여 건축 연면적 5만m² 규모의 최신 육가공 공장을 설립할 계획이다.

이 공장에는 30만수 규모의 도계설비와 계류장, 물류창고 등이 들어선다.

사조그룹은 사조아그로가 본격 가

동되며 2014년 이후 사조그룹의 축산부문 연간 매출이 7000억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사조그룹은 이미 지난달 11일 함평농공단지 입주업체 사료제조공장인 (주)대원사료를 인수, (주)사조바이오피드를 설립해 양돈과 양계 사료 사업에도 진출한 상태다.

전남도는 국내 수산 및 축산물 가공 및 유통기반을 가진 사조그룹이 투자를 결정함으로써 도내 축산업 수직 계열화를 통한 주민소득 창출과 신규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안병호 함평군수는 “사조그룹의 투자로 400여명의 고용창출 효과와 함께 농가소득 증대 등의 각종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진우 회장은 “이번 투자가 함평군의 지역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전남도와 사조그룹은 16일 도청 서재필실에서 함평에 760억원 규모의 도계 및 육가공사업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왼쪽부터 주진우 사조그룹 회장, 박준영 전남지사, 안병호 함평군수.

(함평군 제공)

보탬이 되길 바란다”면서 “기존 육가공 사업과 연계해 사료사업, 축산업, 도축사업, 가공사업 등 사업구조를 수직 계열화해 시너지를 창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자기 기자 dok2000@kwangju.co.kr /서부취재본부=황운희기자 hwang@

올 여가활동비로 34조 썼다

오락·문화 등 실질 소비지출의 8.74% 사상 최대

국민의 소비생활에서 여가활동이 차지하는 비중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16일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올해 들어 3분기까지 가계의 오락·문화 실질 소비액은 34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가계의 실질 소비지출에서 8.74%를 차지하는 금액이다.

1970년대 2%대 안팎에 머무르던 오락·문화 소비 비중은 2000년 대 초반 7%대, 2000년대 후반 8%대로 높아졌다. 금융위기를 겪고 난 지난해 8.57%로 조금 하락했지만 올해 들어 사상 최고치를 경신

했다. 오락·취미·경기용품 판매액은 2005년 3조6041억원에서 지난해 5조1373억원으로 42.5% 증가했다.

한은 관계자는 “소득 수준이 높아지고 여가시간이 늘면서 관련 소비지출도 증가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선진국과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여가 수준은 여전히 최하위권이다. 무엇보다 긴 노동시간이 여가 생활을 제약하는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오락·문화 지출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우리나라가 2007년 기준 3.7%로 OECD의 21개 주요 선진국 가운데 아일랜드(3.1%)와 더불어 끌찌 수준이었다.

반면 연간 노동시간은 2008년 기준으로 방글라데시(2301시간) 보다도 긴 2316시간으로 세계 1위였다.

현대경제연구원 이원형 연구원은 “여가 수준을 높이는 관건인 노동시간 단축은 오랜 시간이 걸리는 사안”이라며 “문제는 상당수 국민이 아직 ‘여가를 활용하는 법’을 제대로 익히지 못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대한통운 매각

금호아시아나·채권단

금호아시아나그룹이 채권단과 함께 대한통운을 공개 매각한다.

16일 금융권과 산업계 등에 따르면 금호그룹은 아시아나항공 등의 계열사들이 보유하고 있는 대한통운 지분 중 최대 25.6% 가량을 매각하기로 했다.

금호그룹의 주체권은행인 산업은행 대우건설이 갖고 있는 대한통운 지분 24.0%를 금호그룹과 함께 매각하기로 했다. 산업은행은 최근 사모 주식펀드를 조성해 대우건설을 인수했다.

대한통운 주주인 아시아나항공은 17일 주요 채권단을 대상으로 대한통운 매각을 위한 비공개 설명회를 갖는다.

금호그룹과 산업은행은 이달 말까지 매각 가격과 시기 등을 논의한 뒤 내달부터 공개 매각에 나서기로 했다.

/연합뉴스

광주시 올해 유망中企 15곳 선정

신진정밀·남도금형 등

광주시는 16일 기술력이 우수하고 성장잠재력이 높은 신진정밀, 남도금형, 디케이산업 등 ‘2010년 유망중소기업’ 15개 기업을 선정 발표했다. 선정 기준은 재무성장·기술품질수준·기술혁신노력을 등이었다.

15개 유망중소기업은 3억원 한도

에서 2.5%~3%의 이자 보전을 받은 일반기업보다 한도액이 2억원 늘어나고 이자보전도 1%가 추가된다.

광주시 관계자는 “유망중소기업으로 선정된 업체에 대해서는 자금지원, 판로지원 등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책을 확대해 경쟁력을 갖춘 유망기업으로 육성시켜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선정 기업은 다음과 같다.

▲신진정밀(주) ▲남도금형(주)
▲디케이산업(주) ▲(주)럭키산업
▲(주)광일기공 ▲(주)부진기연 ▲
제이엘씨(주) ▲(주)뉴피아 ▲(주)인아 ▲동진전자(주) ▲(주)한동테크
▲(주)대성포장산업 ▲(주)은하 ▲
(주)탑스코 ▲지티에스(주)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전통시장 환해진다

백열전구 LED로 교체

지식경제부는 내년부터 2013년까지 모두 338억원을 들여 전국의 전통시장 1550곳에서 30% 가량 차지하고 있는 백열전구를 모두 LED 조명으로 교체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준공 후 10년 이상 지난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공공임대 아파트에서 난방시설 개선 등을 광고로 한 ESCO(에너지절약 전문기업)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내년 137억원 규모 안에서 지자체의 지원 신청에 따라 지원 규모를 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기초생활 수급 가구 및 사회복지시설의 저효율 조명기기를 무상으로 교체하기로 했다.

전자부품研 광주본부 남미시장 개척단

멀티콘센트 등 965만달러 수출 MOU

전자부품연구원 광주지역본부는 지난 6~10일 브라질과 페루 등 80개 지역에 시장개척단을 파견해 멀티콘센트 등 965만 달러의 수출 상담 및 수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사진)

시장개척단에는 광주지역 업체인 (주)유민전기와 (주)맥스원테크놀로지 등 6개 업체가 참여했다.

유민전기는 페루 일렉트로주파사와 멀티콘센트 약 80만달러 어치 80만개를 분기별로 공급하기로 합의했다.

또 (주)맥스원테크놀로지(DID-VR)는 브라질 현지 기업과 2014년 브라질 월드컵 특수를 위한 공동협력 사업 추진하기로 했다.

/박정우기자 jwpark@kwangju.co.kr

광주 대명엘리베이터

‘승강기 엑스포’ 참가

승강기 전문업체인 대명엘리베이터(대표이사 최광일)가 15~18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2010 한국승강기안전엑스포’에 참가했다.

대명엘리베이터는 면적이 좁은 곳에도 설치가 가능한 3~6인승용 소형 엘리베이터인 휠 엘리베이터를 출품했다.

또 엘리베이터 내에 LCD 터치스크린을 설치해 날씨·경제·공연소식 등을 제공하는 엘리베이터 스마트 미디어와 비디오텔레포니 시스템 등을 선보였다.

/박정우기자 jwpark@kwangju.co.kr

코스피지수

2,009.24 (-8.24)

코스닥지수

511.71 (-2.98)

금리 (국고채 3년)

3.35% (-0.08)

원·달러 환율

1,152.60원 (-2.20)

※수치는 전일 종가 기준

포스코 4조2교대 근무

내년부터 시행... 휴무일 103일서 191일로 늘어

포스코가 내년부터 4조2교대 근무제를 공식 시행한다.

4조2교대는 4개 근무조 중 두 조는 하루 12시간씩 교대근무를 하고, 나머지 두 조는 쉬는 근무 형태로, 기존 4조3교대제와 비교할 때 휴무일이 연간 103일에서 191일로 늘어나게 된다.

직원들의 찬반투표를 거쳐 내년부터 본격 시행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해당 사업장 직원들은 시범 시행 기간에 야간 연속 근무일 감소, 휴게 여건 개선, 업무부하 경감, 휴무일 증가 등을 4조2교대의 가장 큰 장점으로 꼽았다. 그러면서 신체리듬 변화와 휴무일 프로그램 확대 등은 보완 해야 할 사항으로 들었다.

포스코는 지난 10월 2차 시험운영에 들어간 29곳의 사업장에서도 6개 월 후인 내년 4월까지 공장별 휴무일을 191일로 확장하겠다고 밝혔다. 이들 사업장은 지난 7월부터 6개월 간 종전의 4조3교대를 대체하는 4조2교대 근무제를 시범 도입했고, 최근

/연합뉴스

현대공인중개사

토지 급 매매

▶서구 마륵동·생산녹지, 3002m²(908평), 매매가 15억원 대출 농협7억 김대중컨벤션 인근, 교회 식당 창고 공장 용도다양

광산구 토지 매매

▶광산구 양동, 계획 관리지역, 28,845m²(8,725평), 농지·토지면적 15,818m²(4,784평) 전용 되어있음, 건축물 637.46m²(192.83평), 현저 썰 매장, 적합한 용도 : 기도원 수련원 공장 창고 사회복지시설(요양원, 요양병원), 전원주택 부지로 개발 가능, 매매가 협의 후 결정

▶송학동, 계획관리지역, 2차선도로에 접, 21,914m²(6,629평) 매매가 22억

수익성 좋은 상가건물 매매

광산구 우산동, 대지 321m²(97평) 건물 지하1층 지상6층 13,266m²(401평) 임대 내용 : 보증금 2억1천5백만원, 월 740만원(부기기자세 별도), 아파트 2,300세대인근, 대출 3억원, 매매가 15·18 광로변

▶본 광고물건은 전속 계약 된 물건임 ■

T. 062)371-1900, 010-2006-0115

상무 우리은행에서 50m지점 www.8585949.co.kr

GG경매컨설팅(주)

대표이사 노한구 ☎ 222-1907

공인중개사 010-9311-1907

▶아파트

지역 소재지 아파트명 면적/m²/평 감정가 최저가 비고

광산구 수원동 혜진아파트 215/65 4억6천평 3억2천평

광복동 전화마을 121/36 1억9천평 1억3천평

신동동 혼례비단마을 112/10 1억5천평 1억2천평

월곡동 베신 145/44 1억8천평 1억2천평

월곡동 영천수원자치 109/33 1억2천평